

송광사 소장 佛書의 보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ervation of Songgwang-sa's Buddhist Scriptures

박지선(Park, Chi-Sun)*

◁ 목 차 ▷

- | | |
|-------------------------|------------------------|
| 1. 서론 | 2.2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 전적의 보존 |
| 2. 송광사 소장 佛書의 보존현황 | 3. 결론 |
| 2.1 송광사 보물지정 문화재 5책의 보존 | |

< 초 록 >

2004년 2월, 順天 松廣寺의 四天王像 보수·해체 시 사천왕상 服藏遺物로 佛書 총 12종 14책이 발굴되었다. 이 佛書들 가운데 일부는 벌레, 쥐 등에 의해 앞·뒷장 일부가 결실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천왕상 자체가 외부에 위치해 있어 典籍 또한 공기와 충해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천왕상 해체 시 발견된 佛書의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송광사에는 국가 지정품으로 정해진 佛書 5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문화재보존처리가 실행되어 재질분석 등의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佛書의 보존에 관한 연구는 송광사 소장의 국가 지정품 佛書 5책의 기존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비교 연구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요어: 송광사, 불서, 사천왕상, 복장유물, 보존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문화재보존학과 부교수(chisunpark@hanmail.net)

접수일: 2005년 6월 7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It was examined the 14 books of Buddhist scriptures which is composed of 12 kinds, which were found in the center of chest on the Four-guardian statues of Songgwang-sa at Sooncheon city, when the statues were repaired and taken to the pieces in February 2004.

The Buddhist scriptures are lost some parts of covers. Because the Four-guardian statues are located in poor environment including the plague of vermin and the exposition of air, the scriptures had been exposed to the same hazard.

This study is the basic examination by reference for conservation of the Buddhist scriptures. There are the other 5 Buddhist scriptures in Songgwang-sa, which are the national cultural relics. They have already been examined about the quality of the lumber through the project for conservation of cultural relic from 2002 till 2003. Therefore, this comparative study will give us much information.

Additionally, I think this examination is a good chance to confirm the result of the earlier research of the 5 Buddhist scriptures

Keywords: The Buddhist Scriptures, Founded in the Chests of four-guardian Statutes of Songgwang-sa, conservation

1. 서론

2004년 2월 송광사의 사천왕상의 보수·해체 시, 사천왕상 내에서 복장유물로 佛書가 모두 12종 14책 발굴되었다. 우리나라 전적문화재 중 佛書가 복장유물로 발견되는 예는 매우 많다. 사천왕상 복장 발굴의 한 달 후인 3월 말에 개최된 송광사 정보박물관의 佛書 전시 특별전에서는 전남 장흥 보림사와 영광 불갑사의 사천왕상의 복장전적이 전시되었다. 복장전적의 경우 불상의 크기에 따라 복장품의 양도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그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과거 많은 양의 복장품이 이미 유출된 상황이다. 특히 외부에 위치하는 사천왕상 복장유물의 경우 그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심한 경우에는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유물도 일부는 훼손이 심각하여 책의 앞·뒷장 부분이 벌레, 쥐 등에 의해 결실되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송광사의 경우 기존에 전하여 온 「대반열반경소(大般涅槃經疏)」, 「묘법연화경찬술(妙法蓮華經續述)」, 「대승아비달마잡집론소(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금강반야경소개현(金剛般若經疏開玄)」 5책이 이미 국가지정품으로 전해져 그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5책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문화재보존처리가 실행되었고, 이에 대해 이미 재질분석 등의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1차로 기존의 5책에 대한 조사를 보고하고, 앞으로 2차 연구에서 이번의 1차 보고를 기초로 하여 비교 발표할 예정이다.

2. 송광사 소장 佛書의 보존현황

송광사에서 기존 소장본인 佛書 5책과 작년 발굴된 사천왕상의 복장유물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송광사 국가지정 문화재 5책

번호	서명	지정번호	간행기	연대	크기 (세로×가로,cm)	표지의 유무		보존상태
						앞	뒤	
1	大般涅槃經疏	보물 제90호	壽昌五年己卯	조선 세조	36.97×33.63	○	○	上上
2	妙法蓮華經續述	보물 제204호	壽昌元年乙亥	조선 세조	36×35	○	○	上上
3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보물 제205호	大安九年癸酉	조선 세조	38.63×34.39	○	○	上上
4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料文	보물 제206호	壽昌五年己卯	조선 세조	37.34×31.66	○	○	上上
5	金剛般若經疏開玄	보물 제207호	壽昌四年戊寅	조선 세조	33.71×31.06	○	○	上上

<표 2>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유물

번호	서명	간행기	크기 (세로×가로, cm)	표지의 유무		보존상태
				앞	뒤	
1	妙法蓮華經 卷7		31.0 × 35.5이상	○	×	下下
2	金剛鐔顯性錄 卷3·4	天順五年	37.0 × 32.6	○	○	中下
3	大威德經陀羅尼 卷4		40.2 × ?			下下
4	妙法蓮華經續述 卷5·6		34.1 × 31.2	○	○	下
5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		39.0 × 24.6	×	○	中
6	法華文句記 卷5·6		42.6 × 30.0	○	○	中下
7	法華文句記 卷7·8		40.8 × 29.5	○	○	中
8	成唯識論述記 卷6		38.7 × 24.4	×	○	中
9	成唯識論義燈抄 卷3·4		40.8 × 29.5	○	○	中下
10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天順六年	34.5 × 31.0	○	○	中
11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		38.9 × 23.9	○	○	上
12	成唯識論義景抄 卷12		약37.6 × ?	×	×	下
13	成唯識論義景抄 卷19		37.9 × 23.5	○	×	中下
14	妙法蓮華經玄義 卷3·4		40.0 × 31.2	○	○	中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기준에 사찰에 전해 내려온 국가 지정품에 비해 복장 유물의 보존상태가 월등히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장유물이 매우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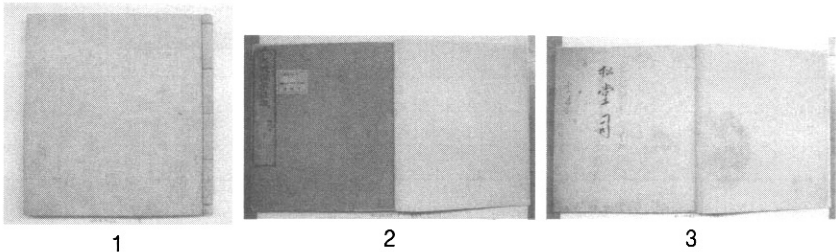
래전에 사천왕상에 납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래유물은 사찰에서 소중히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묘법연화경찬술은 같은 판본으로 권수만 달리하여 전래유물과 복장유물에 나 존재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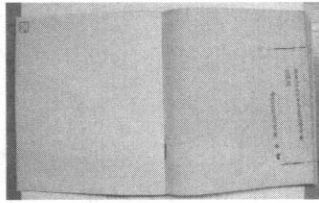
그리고 송광사 복장유물의 특이한 점은 표지가 붙은 채로 복장유물로 쓰여진 사실이다. 불갑사와 보림사의 복장유물과 같이 대부분의 복장유물에는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채로 발견된다.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불경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딱딱한 표지가 방해가 되므로, 표지를 뜯어내고 넣은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송광사 복장유물에 표지가 붙어있는 이유는 아마도 사천왕상 자체가 매우 크고, 또 다른 사찰처럼 무리하여 많은 책을 집어넣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2.1 송광사 보물지정 문화재 5책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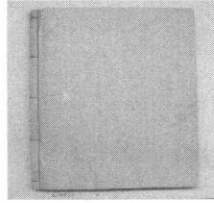
2002년 송광사 소장의 국가지정 보물 5책은 보존처리할 당시, 이미 1990년대에 1차 수리를 마친 상태였다. 이 5책은 유물의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다만 이진(二進)의 수리 시에 책장의 뒤에 두꺼운 배집지를 덧대어, 책이 매우 두꺼워지자, 이를 분책(分冊)하여 책 고유의 형태를 손상시킨 상태였다.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1권 수리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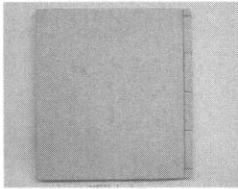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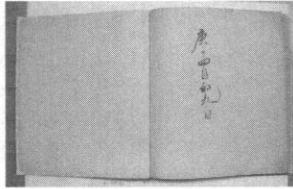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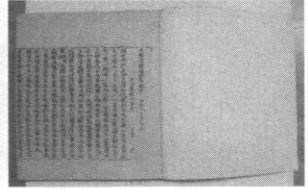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2권 수리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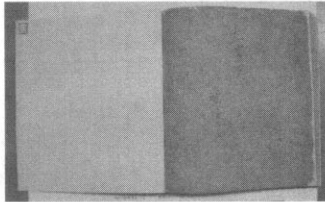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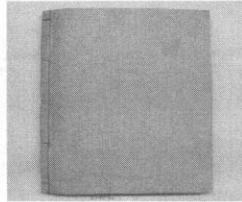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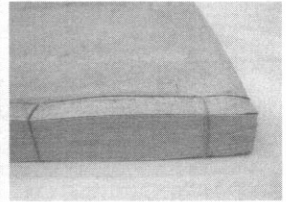
3



4



5



수리후 합책한 모습

<표 3> 분책 상황

번호	서명	책수(권)
1	大般涅槃經疏	2
2	妙法蓮華經續述	2
3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2
4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1
5	金剛般若經疏用玄	3

지류문화재 중 서적, 문서 등의 보존처리는 과거에는 배접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배접이란, 지류유물의 뒷면에 소맥전분풀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종이 한 장을 덧대어 튼튼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즉 열람


시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문화재의 가치 보다는 사용의 목적이 우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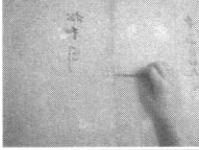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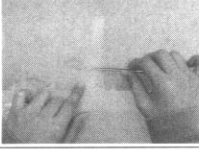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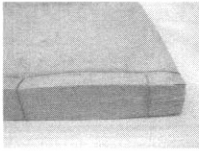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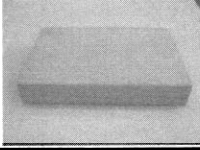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용자는 세심한 배려 없이 문화재를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서지학적 자료 조사의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 배접을 하여 소맥선분과 배접지라는 이물질이 가해진 상태에서만 문화재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의 바탕재질로써의 종이에 대해 느끼고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 없으므로, 이는 재질학적 자료조사의 면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문화재 보존에 있어 '원형유지'를 중요시하게 되어 과거처럼 '지류문화재의 보존 처리 = 배접'이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배접이란 문화재의 바탕재질이 되는 종이 손상이 매우 심해 그 자체만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경우에 최소한의 보관조치 즉, 최저 농도의 소맥선분풀(가장 얇고 보존성이 좋은 배접지)로 덧대어 주는 것으로, 보존처리에 있어 마지막 선택해야 되는 결정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지류문화재의 대부분이 장섬유이면서 보존성이 탁월한 닥섬유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존처리 과정에서 배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송광사 지정문화재 5책의 경우도 혼합재질이긴 하여도, 닥섬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배접지를 덧대지 않아도 그 상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2001년~2002년의 보존 처리는 과거 수리 시 덧대어진 두꺼운 배접지를 제거하고 그 원형을 되찾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전적류의 보존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전적류의 보존처리 과정

번호	보존처리 과정	내용	
1	훈증 및 크리닝	소장처의 보존환경이 열악할 경우, 곰팡이 벌레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에 의한 훈증을 실시한 후, 표면의 먼지 등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2	조사	사진촬영, 및 상태조사	

번호	보존처리 과정	내 용	
3	해체	낱장으로 분리하기 위해 제책용 실을 제거하여, 표지와 분리한다. 이 때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번호매김한다.	
4	크리닝	표면의 오염물을 건식으로 제거 한 후, 중성 여과수에 담궈 습식으로 크리닝한다.	
5	배접지 제거	전 수리 시 더하여 진, 배접지 및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원유물의 상태만을 남긴다.	
6	유물종이의 복원	원유물의 결실부분 등에 쓰이는 종이의 복원으로 원 유물과 재질, 기법, 색상 등이 유사하도록 제작한다.	
7	결실부 떼우기	유물의 결실 부분을 복원한 종이와 소맥전분풀을 사용하여 떼우기한다.	
8	건조	실온에서 건조한다.	
9	제책	유물의 원형을 살려 제책한다.	
10	보관상자	오동나무로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유물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도록 한다.	

위의 과정 중 유물의 종이복원은 원 유물의 재질, 기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송광사 유물의 경우 5책 모두 비슷한 종이재질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종이의 복원은 한 종류로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한 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5> 송광사 보물지정 문화재 5책 종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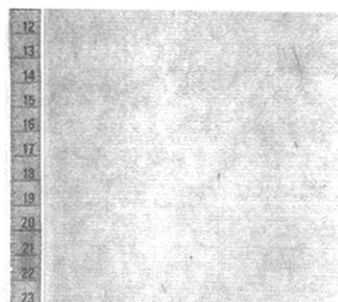
서명	연번	발의 특징 (개/3cm당)	두께 (mm)	무게 (g)	밀도 (g/cm ³)	섬유사진 (×20)
大般涅槃經疏	1	20-22	0.12	11.78	0.42	
	2	14-15	0.18	16.01	0.38	
	3	14-15	0.22	14.24	0.27	
	4	14-15	0.17	11.31	0.28	
	5	14-15	0.18	13.21	0.3	
妙法蓮華經續述	1	14-15	0.16	10.41	0.29	
	2	14-15	0.18	11.33	0.28	
	3	14-15	0.19	11.69	0.27	
	4	14-15	0.19	12.03	0.27	
	5	14-15	0.17	12.52	0.32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1	20-22	0.22	12.34	0.46	
	2	20-22	0.17	12.01	0.56	
	3	20-22	0.17	11.46	0.26	
	4	20-22	0.2	14.96	0.29	
	5	20-22	0.19	14.5	0.31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三玄圓贊科文	1	20-22	0.15	9.41	0.26	
	2	20-22	0.17	12.44	0.31	
金剛般若經疏開玄	1	20-22	0.19	9.17	0.24	
	2	20-22	0.17	9.26	0.27	
	3	20-22	0.14	8.21	0.29	
	4	20-22	0.18	11.22	0.31	
	5	20-22	0.19	11.63	0.29	

조사결과 종이의 섬유는 닥섬유와 벚짚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승아비달마잡집론소를 제외한 나머지 4책은 모두 비슷하게 도련하지 않은 생지(生紙)와 비슷한 밀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대해 의문을 느끼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佛書가 이렇듯 다른 밀도의 종이를 사용하였을까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2001년도의 조사 결과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르게 만들어진 종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의 5책은 모두 닥섬유와 벚짚의 혼합이었다고는 하나 벚짚 등의 함량은 10~30% 정도로 다양하였고, 종이발 역시 3cm 당 14~15개와 20~22개로 두 종류 이상으로 종이를 뜬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복원을 위해 혼합지는 닥 : 벚짚 등을 10 : 1~3으로 다양하게 제작하였고 종이의 두께 역시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종이 발 역시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종이발의 재질로 대나무와 갈대 중 어떤 것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갈대발의 경우 대나무발보다 발의 형태가 뚜렷이 보이는데, 실제 이 두 종류의 발로 비교해 본 결과 갈대발과 유사해 보였으나 단정할 수는 없었다.



발수 : 14-15개 / 3cm



발수 : 20-22개 / 3cm

이렇게 제작된 遺物復原紙는 천연염료로 유물의 색상과 비슷하게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유물종이의 두께, 발의 형태에 따라 맞추어 사용되었으며, 짜집기가 끝난 책은 건조 후 원형대로 합책하였다.

2.2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 전적의 보존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장유물의 경우 그 훼손 상태는 심각하였다. 발굴 당시의 사진을 참고하면, 사천왕상의 구석구석에 먼지에 뒤덮힌 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책의 형태로 발견된 이 외에도 잔편으로 존재하는 것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이 복장전적의 경우는 잔편을 제 위치에 찾아 넣는 것도 보존처리 과정 중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보존처리 과정 중 조사되는 재질에 관한 정보는 기존의 자료와 비교하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결론

사천왕상의 복장전적은 현재 조사연구 중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사천왕상의 제작기법 및 미술사적 연구, 서지학연구를 비롯하여 재질적 연구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연구로써 학계간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각자 서로의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었지만 이것을 함께 모아 종합하였던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재 사천왕상 복장전적은 훼손이 심하고, 또한 국가지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마침 이 전적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또 이미 전래해온 묘법연화경찬술과 같은 책이 나왔으므로 2001년도의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 이번 1차 보고결과를 토대로 사천왕상복장전적을 비교 조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전적의 조성시기, 방법 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순애.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服藏典籍考.”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 박지선. “古代 종이 遺物의 保存修復.” 『書誌學研究』 제15집(1998).
- 潘吉星. 『中國科學技術史』. 北京: 科學出版社, 1998.
- 孫溪鍊.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대학원. 2005.
- 松廣寺聖寶博物館. 『松廣寺 佛書展示 圖錄』. 2004.